

게임과 교육의 관점에서 본 안드레아스의 『공정풍의 사랑』*

이 동 춘

대구대학교

공정풍 사랑(*amour courtois*)이라는 용어는 크레티앙 드 트로와(Chretien de Troyes)의 작품에 대한 논문에서 1883년 가스통 파리(Gaston Paris)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트로와의 작품, 『렌슬롯』(*Lancelot*)을 논하면서 파리는 공정풍 사랑을 기사와 귀부인 사이의 관계로서 특징짓고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후자에 대한 전자의 맹목적 숭배와 이를 통한 전자의 인품의 고귀한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파리는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귀부인을 사랑하는 기사는 그녀의 권위와 명령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그녀 때문에 일상에서는 물론 전투에서 기사가 용감하고 명예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파리가 말하는 공정풍 사랑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그 같은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기사가 귀부인으로부터 성적인 결합과 같은 최종적인 것을 얻어내지는 못할 지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플라톤적 사랑이 아닌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으로 파리는 공정풍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다.

공정풍 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린 파리 덕분에 공정풍 사랑은 중세 비평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

* 본 논문은 2011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었다. 이후 루이스(C. S. Lewis)는 궁정풍의 사랑을 “고도의 특화된 사랑”(love of a highly specialized sort)으로 묘사하며 그것의 특징들로서 “겸손”(Humility), “예의”(Courtesy), “간통”(Adultery) 그리고 “사랑의 종교”(Religion of Love)를 제시한다(2). 반면 궁정풍 사랑을 지나칠 정도로 체계화 혹은 이론화시키는 경향에 반대하여 로버트슨(D. W. Robertson)과 도날슨(Talbot Donaldson)은 궁정풍 사랑은 중세 텍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현대 비평가들의 만든 용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로버트슨의 말대로 궁정풍 사랑이라는 용어가 중세 문학작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2세기 프로방스(Provence) 시에서 궁정풍 사랑이라는 용어가 한 차례 사용되고 있을 뿐, 현존하는 중세 작품 어디에서도 궁정풍 사랑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다(Boase 668). 다만 12세기 프로방스를 비롯한 남부 프랑스의 음유시인들의 작품에서 궁정풍 사랑과 매우 유사한 이른바 ‘순수한 사랑’(fin'amor)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이들 음유 시인들 누구도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작품들을 토대로 로버트슨의 주장처럼 궁정풍 사랑이라는 용어를 체계화 혹은 이론화시킬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풍의 사랑이 기사도 및 그리스도교 신앙과 더불어 중세 시대 유럽 문명의 한축을 형성할 정도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De Amore)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가스통 파리가 중세 음유시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특화된’ 사랑을 재발견하여 이에 이름을 붙여주고 비평가들 사이에 유행시킨 인물이라면 안드레아스는 궁정풍의 사랑에 관한 이론을 만들고 체계화시킨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가 안드레아스는 누구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작품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작품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평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찾기란 더욱더 쉽지가 않다. 극단적인 예로서 어떤 성직자는 안드레아스의 작품을 읽고 재미있어하는가 하면 13세기 탱피어(Stephen Tempier) 주교와 같은 성직자는 작품의 비도덕적이며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작품을 공식적으로 일혀져서는 안 되는 이른바 금서(禁書)로까지 낙인찍기도 하였다(Cherniss 223).

그런가 하면 당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궁정풍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안드레아스의 작품을 궁정풍 사랑을 체계화시킨 철학적 글로서 인정하는 비평가

들도 있다.¹ 또한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로버트슨을 비롯한 일부 비평가들은 안드레아스는 작품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육체적인 죄들을 아이러니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 그러나 최근 들어 작품 속 내용들은 물론 작가 안드레아스의 정체성과 그가 기대했던 독자층을 포함하여 그나마 비평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평가들마다 제 각기 다른 입장들을 표출하고 있다.³ 특히 안드레아스의 작품과 관련하여 비평가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작품에서 안드레아스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궁정풍 사랑』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궁정풍 사랑을 조망함으로써 궁정풍 사랑의 기능과 효과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2세기 프랑스 귀족 계층의 성(性)과 결혼, 그리고 종교의 관점에서 궁정풍 사랑의 개념들을 연관지어 당시 귀족 계층에서 유행했던 궁정풍 사랑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언어유희' 혹은 '게임'으로서 『궁정풍의 사랑』

루이스나 패리(John Parry)와 같은 초기 비평가들과는 달리 최근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을 일관적이며 체계적인 사랑의 철학서로 보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랑에 빠진 귀족에게 실질적인 충고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소책자로 안드레아스의 작품을 보는 경향 또한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안드레아스의 작품이 궁정풍 사랑을 논한 12세기, 13세기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 12세기 신학, 철학, 문학의 전통을 수용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들을 절충, 조합시킨 작품이 바로 『궁정풍의 사랑』이라고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⁴

¹ Lewis 32-43; Parry 3-24; Denomy 참조.

² Robertson, *Preface to Chaucer* 391-448, "Subject of the *De amore*"; Jackson; Coghill 참조.

³ 지금까지 안드레아스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견해들을 언급하고 있는 Monson, "Andreas Capellanus and Reception Theory"를 참조할 것.

⁴ Cherniss; Monson, "Andreas Capellanus and the Problem of Irony"; Foster 참조.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내용과 분위기에 있어서 제 1, 2권과 3권의 모순된 현상은 물론 각권에서조차도 일관성을 찾기가 그리 쉬어보이지는 않는다. 각 권사이의 서로 다른 내용과 분위기 외에 각 권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내용과 코믹한 분위기 때문에 안드레아스의 의도를 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안드레아스의 글은 당시 귀족 계층에서 유행했던 궁정풍 사랑을 체계화시킨 일종의 이론서가 아니라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서 기획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드레아스의 작품이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이론서가 아니라 특정 목적, 그것도 당시 독자에게 흥미와 유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라는 예로서 먼저 제 1권, 2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안드레아스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궁정풍 사랑을 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써 로버트슨은 작품에서 안드레아스가 보여주는 유머 감각을 꼽고 있다(145). 아이러니와 풍자 등의 기법을 통하여 안드레아스는 제 1권과 2권에서 육체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죄를 우회적이며 코믹하게 비판하고 제 3권에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사랑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로버트슨은 주장한다. 각권에 나타나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코믹한 분위기에는 동의하나, 제 1, 2권의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제 3권을 위한 것이라는 로버트슨이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책의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안드레아스가 제 1권과 2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반면 제 3권에서 안드레아스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하고 단순하여 글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태도 면에서 제 1, 2권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로버트슨의 주장처럼 안드레아스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파하고자 했다면 굳이 장난스럽고 코믹한 방법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며 제 1, 2권에서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논한 다음 그토록 단순하게 제 3권에서 종교적 사랑을 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로버트슨의 주장은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 혹은 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안드레아스의 작품을 바라본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직자로서 안드레아스의 본분과 가치관이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로버트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 1, 2권의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안드레아스가 성(性)과 결혼 그리고 남녀의 사회적 위치 등과 관련하여 당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13세기 프랑스 주교였던 탕피어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안드레아스의 작품속 내용들이 당시 교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 1권과 2권에는 장난스럽고 코믹한 내용 및 장면 설정 외에 교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성적인 내용은 물론 외설스러운 말장난들이 사용되고 있다(Bowden 67, 81). 아울러 안드레아스가 작품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나 내용들 모두가 실재라기보다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벤튼(John Benton)의 주장을 감안할 때(551-91),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은 체계적인 이론서가 아니라 일종의 문학적 허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당시 독자에게 흥미와 유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드레아스는 제 1권과 2권을 기획하였으며,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를 비롯한 중세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성직자로서 안드레아스가 제 1권과 2권의 유희에 대한 ‘철회’(retraction)로서 제 3권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1.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 1권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안드레아스의 작품이 종교적 목적보다는 문학작품으로서 당시 독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안드레아스가 허구적이며 코믹한 내용과 아이러니나 풍자와 같은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흥미와 유희를 제공하려했던 대상, 즉 안드레아스의 독자층은 누구일까? 작품이 라틴어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품이 샴페인의 백작부인(countess of Champagne)인 마리(Marie)를 위한 것이라는 통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녀가 후원하던 크레티앙 드 트로와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는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모든 책이 영어로 쓰이길 원했다고 벤튼은 주장한다(586). 또한 당시 궁정에서 라틴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은 극히 한정된 수에 불과했으며, 마리 역시 라틴어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떠한 기록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벤튼은 말한다. 오직 당시 라틴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할 만큼 라틴어에 익숙했던 계층은 오직 두 계층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안드레아스와 같은 성직자 집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받은 궁정의 귀족계층이었을 것이다. 전자를 염두에 두고 안드레아스가 궁정풍의 사랑을 썼다고 보기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틴어 원전에는 존 패리의

영어 번역에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성적인 뉘앙스나 분위기를 풍기는 표현이나 말장난들이 다수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드레아스의 주 독자층이 성직자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제 7장과 8장에서 각각 성직자의 사랑과 수녀들의 사랑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안드레아스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는 아무리 자신의 작품이 허구로서 독자들에게 유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녀를 비롯한 성직자에게 사랑은 물론 언어적 유희 또한 금해져야 한다는 안드레아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안드레아스의 독자층은 라틴어를 읽을 줄 알뿐더러 당시 궁정풍 사랑에 매우 익숙한 당시 일부 귀족들로 한정되어 진다. 궁정풍의 사랑을 노래한 당시 음유시인들처럼, 안드레아스 역시 궁정의 일부 귀족 계층을 겨냥하여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은 제 1권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을 안드레아스가 귀족계층의 남녀로 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사랑을 위해 남녀가 나누는 제 1권 속 대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사랑을 저해하는 다양한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다름 아닌 남녀 사이의 사회적 신분이다. 사랑은 농민, 창녀, 그리고 사랑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gold-diggers)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귀족계층을 위한 것임을 안드레아스는 확실히 하고 있다. 안드레아스는 농민을 짐승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부와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에 전념하는 동안,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결실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친절한 농토가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사랑의 이론과 관련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216)⁵

It is not expedient that they should be instructed in the theory of love, lest while they are devoting themselves to conduct which is not natural to them the kindly farms which are usually made fruitful by their efforts may through lack of cultivation prove useless to us. (150)

심지어 농민 출신 여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할

⁵ 안드레아스 작품에 대한 본 논문의 우리말 인용은 이동춘의 번역을 따름.

정도로 안드레아스는 궁정풍 사랑의 대상에서 농민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궁정풍 사랑의 대상은 귀족 계층의 남녀로 한정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제 1권에서 논하고 있는 사랑의 다양한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층 역시 귀족의 남녀들이라는 점을 안드레아스는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의 중심에는 귀족이 있으며, 작품의 소재며 주제, 그리고 작품의 전통 모두가 귀족계층에 의해 결정되는 중세 궁정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의 말처럼,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 역시 “(귀족) 계층의 결속과 배타성”(class solidarity and exclusiveness)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139-40).

2. 언어적 유희와 게임

질투심을 비롯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으며, “결혼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변명이 되지 않는다”(Marriage is no real excuse for not loving)가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규칙에 해당한다. 이른바 ‘간통’ 혹은 ‘불륜’ 그리고 ‘육체적 결합’이 궁정풍 사랑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안드레아스가 제 1권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남성이 원하는 여성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육체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1권, 6장에 들어있는 여덟 개의 대화 모두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이 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화 속에서 성적 결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육체적 만족에 대한 요구내지 필요성 또한 두 남녀 사이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둘 사이에 중요시 되는 것은 육체적 결합보다는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논리와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언어 게임(word game)처럼 남녀 서로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각자의 언어적 기술과 논리,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안드레아스가 제 1권의 대화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궁정풍의 사랑에서 결과보다는 과정과 스타일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점들이 바로 창녀나 앞서 언급한 농민 출신의 여성과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패리의 영어 번역본 186쪽 가운데 106쪽에 해당하는 분량이 제 1권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서 남녀 사이 대화에 관한 내용이 제 1권의 중심이 놓여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안드레아스가 작품을 통하여 당시 귀족 계층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제 1권에 들어있는 여덟 개의 대화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분량 면에서나 앞서 언급한 언어 게임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서 안드레아스의 의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두 대화의 기본적인 설정부터 다소 비현실적이며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혈통과 가문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당시 신분 체계를 감안할 때, 신분이 서로 다른 남녀, 그것도 신분이 낮은 남성이 자신보다 두 단계나 신분이 높은 여성과 사랑의 유희를 즐기려 한다는 설정 그 자체에 대하여 당시 귀족 계층의 독자라면 실소(失笑)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귀족 계층의 독자는 안드레아스의 대화에 등장하는 남녀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가상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작가인 안드레아스 역시 이 같은 비현실적이며 인위적인 설정과 남녀 사이의 일정한 규칙 아래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카니발에서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Butturff 182).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남녀 사이의 비현실적이며 다소 인위적인 대화 설정과 더불어 둘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과정과 내용은 남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남녀 대화의 과정과 내용은 일정한 규칙 아래 서로가 수사학적 게임 혹은 유희를 즐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화에서 남성은 먼저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 상대 여성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남성의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성은 이내 간파한다: “당신께서는 악의없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내가 아름답지 않는데도 당신은 나를 다른 못 여성들보다 더 아름답다며 칭찬해주시고”(You seem to be telling fibs, since although I do not have a beautiful figure you extol me as beautiful beyond all other women; 52; 37). 세 번째 대화의 여성 또한 자신이 대한 남성의 칭찬이 아부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내 파악

할 정도로 남성이 여성에게 던지는 칭찬은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행해지는 일종의 형식과 과정처럼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대화에서 여성이 자신보다 신분이 두 단계나 낮은 남성이 건네는 인사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두 단계나 아래에 있는 남성을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But I do not wish to love, particularly a man in a class two below my own; 78; 55)라고 단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가며 오히려 남성에게 대화를 더 이끌어갈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두 개의 대화에서 여성들 모두 남성의 호의와 칭송에 대하여 다소 무덤덤하게 반응은 하나 남성과의 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남성에게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의 없어 보이는 대응에 대하여 보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상대 여성의 인품과 태도에 대하여 칭찬을 쏟아낸다. 이에 대하여 여성 또한 보다 재미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남성의 공략을 역 이용한다: “만일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내 신분이 귀족에 해당한다면, 중간계층의 당신은 같은 계층 여성의 사랑을 얻어야 할 것이며 . . .”(If I am as noble as you are trying to make out, you, being a man of the middle class, should seek the love of some woman of the same class . . .; 53; 38).

마찬가지로 세 번째 대화 속 여성의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타고난 신분의 불합리성을 언급해가며 상대 여성의 감정에 호소한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무한함을 당신이 깨달았을 때, 당신이 보다 쉽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when you recognized the immensity of my love for you, you in turn might the more easily incline your mind to me; 79; 56). 뿐만 아니라, 남성은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봉사”(service) 및 “보상”(reward) 등의 단어를 통하여 상대 여성을 봉건 영주로 섬기겠다는 자신의 뜻을 보다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보잘것없는 신체를 언급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여성은 남성의 반격을 저지하는데, 이는 그녀가 남성의 감정적 호소와 설득력 있는 언변에 밀리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다시 첫 번째 여성의 반격에 대하여 남성은 진정한 귀족이란 타고난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인품과 재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주장은 초서의 여장부의 이야기 속 노파가 젊은 기사에게 설교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상시킨다.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당시 사회적 관례를 감안할 때, 그럴듯하게 들리나 역지에 불과한 노파의 주장처럼 대화 속 남성의 주장 역시 당시 독자층에게 웃음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의 비상 식적인 응수에 대하여 여성은 예의를 갖춰 게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성의 체면을 세워준 다음, 또 다른 내용으로 공격 포인트를 노린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이가 든 남성들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에 몸서리가 쳐집니다”(but I am rather young, and I shudder at the thought of receiving solaces from old man; 54; 39). 이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이 빠져나갈 수 없는 두 개의 경우, 즉 젊은 남성과 나이가 든 남성을 설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여성을 점점 압박해나간다. 그러나 여성은 보다 쉽고 가볍게 남성의 공격을 피하며 남성의 전략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파리로 가야 할 것인데, 분별력이 있고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의 사랑을 구하려는 미숙하고 교육받지 못한 남성이 무지 속에서 너무나 애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58)

You should plan to go to Paris for your education, rather than to be tutored by a woman, because an awkward, untaught man who seeks the love of a sensible, well-taught woman seems to be laboring to much in ignorance.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사이의 대화는 단절 없이 몇 차례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비록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궁극적으로 얻지는 못하나, 여성의 능수능란한 언변과 태도 덕분인지 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을 서로가 벌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규칙 아래서 각자 나름의 언어 능력과 기법을 동원하여 서로가 게임을 즐겼다고 보인다.

이러한 게임 양상은 신분이 두 단계나 차이를 보이는 세 번째 대화 속 남성과 여성에서도 나타난다. 세 번째 대화에서 여성 역시 첫 번째 여성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를 지켜가며 나름의 웅변술을 통하여 상대 남성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신체를 언급해가며 상대 남성의 공격을 피하려한 여성은 남성의 적절한 예시와 비교를 통한 반박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내비친다. 남성의 체면과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인의 인품과 능력을 입증해보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남성 또한 같은 태도로 여성의 요구에 정중하게 응수한다. 남녀가 대화에서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모습은 제 1권의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대화는 물론 그 밖의 여섯 개의 대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첫째로 궁정풍 사랑이 형식과 스타일, 혹은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논문의 후반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는 또한 궁정풍 사랑이 당시 귀족들 사이에 실제로 행해졌던 사랑이었기 보다는 그들만의 배타적인 스타일과 형식을 공유하고 즐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밖에도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상대의 ‘체면 살리기’(face saving)는 단절 없이 대화가 지속적으로 즐겁게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몇 차례에 걸쳐 남성의 모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세련된 언변과 예의바른 태도를 통하여 남성과의 대화를 지속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탐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수치스러운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니, 당신에게 분명 가르침이 허락될 것입니다. (83)

But since it would seem to set a shameful precedent, one prompted by avarice, if those who have experience were to deny their lessons to those who have not and ask to be taught, you will without a doubt obtain the grant of our instruction. (59)

그리고 첫 번째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비상식적이며 다소 인위적인 대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성은 끝까지 희망을 유지

한다. 대화를 통하여 육체적 결합이나 만족이 연기 혹은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대화 어디에도 육체적인 결합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 버크(Kenneth Burke)의 주장처럼, 궁정풍의 사랑은 “수사학적 연기”(rhetorical performance)에 불과하며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언어적 수준으로 전환시키고 있다(174-80).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이며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남성은 육체가 아닌 언변술로 여성의 호의를 얻으려 할 뿐이며, 여성 또한 남성에 상응하는 언변술과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기꺼이 누구에게도 승산이 없는 게임을 전개할 뿐이다. 한마디로 안드레아스의 궁정풍 사랑 속 연인들이 에로틱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이들의 대화에는 진지함이나 긴장감도 없으며 모순적인 내용들을 내포하여 남성은 자신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다고 로버트슨은 말한다(*Preface to Chaucer* 446).

우스꽝스러운 설정에 모순적이며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는 도널슨(Talbot Donaldson)의 말처럼 승점을 쌓기 위한 토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170). 그러나 안드레아스가 제 1권에서 보여주는 궁정풍 사랑이란 누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게임이기보다는 품위와 스타일을 유지한 채 긴장감 없이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언어적 유희나 장난에 가깝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흠점이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남녀의 대화 양상이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자아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의 흠점과 허점은 대화가 재미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드레아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들 남녀 사이의 대화는 단절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된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나름의 세련된 언어 기술 능력과 기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흠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외에도 흥미롭게 남녀 사이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남성과 여성의 공통된 자세에 있다고 보인다. 남성은 물론 여성 역시 아무리 상대방의 주장이 비상식적이며 우스꽝스럽게 보이더라도 예의를 가지고서 이를 수용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특히 남성의 주장에 대한 여성의 응수를 살펴보면,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의 자존심을 해치거나 남성의 마음 속 희망을 없애고 있지는 않다(Butturff 184).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격 혹은 반박을 가할

지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희망을 짓밟지 않는 남녀의 태도는 둘 사이의 대화를 지속시켜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품위 있고 재미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아닌가 싶다. 장난스러운 상황과 우스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과정 중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키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품위가 게임을 게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규칙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이러한 내용들이 장녀, 농민, 그리고 황금을 탐하는 사람들이 궁정풍 사랑의 언어게임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II. 짧은 기사의 훈육을 위한 『궁정풍의 사랑』

신분 계층에 따른 여덟 가지의 대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안드레아스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다섯 가지 수단은 ‘잘 생긴 외모,’ ‘정직한 인품,’ ‘달변의 언어 능력,’ ‘막대한 재산,’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자세’인데, 그 가운데서 안드레아스는 사랑의 궁정(the court of love)에서 퇴출되어 마땅한 마지막 두 가지 수단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지 않을뿐더러 외모에 너무나 신경 쓰지 않도록 월터에게 당부하고 있다(chapter 6). 안드레아스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수단은 다름 아닌 ‘정직한 인품’이며 남성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훌륭한 인품이며, 이를 달변의 언어 능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상대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성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열쇠로 안드레아스는 보고 있다: “남성의 정교한 말솜씨는 사랑(큐피드)의 화살을 날려 보내어 말하는 사람의 훌륭한 성품이 도움이 되게끔 뻔뻔스러움을 창출해내기 때문입니다”(an elaborate line of talk on the part of the lover usually sets love's arrows a-flying and creates a presumption in favor of the excellent character of the speaker; 49; 35). 그 다음부터 안드레아스는 신분 차이로 분류된 몇 개 사례에서 남녀가 벌이는 대화내용에 자신의 책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들 대화에는 성적 혹은 육체적인 언급이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시도가 성공했다는 암시 또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일정한 규칙, 예를 들어,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나름의 품위를 지켜가며 각자가 다양한 표현과 수사학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일을 반복

할 뿐이다. 남녀 사이의 대화에서 안드레아스의 관심은 오직 두 사람 사이의 공방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언어와 수사학적 기법이 사용되는 가에 놓여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궁정풍 사랑의 핵심은 사랑을 구하려는 남성의 언어적 그리고 논리적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그 남성이 신분적으로 귀족 계층에 속한다면 안드레아스가 작품에서 말하는 궁정풍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독자 누구도 여덟 개의 대화에 나타나있는 궁정풍 사랑의 기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리라 보지 않는다. 비현실적인 상황설정은 물론 훌륭한 인품이 타고난 사회적 신분을 능가한다는 남성의 되풀이되는 강변(強辯) 대하여 당시 귀족 계층의 독자라면 누구나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초서의 『바쓰의 여장부의 이야기』(The Wife of Bath's Tale)나 『새들의 의회』(The Parliament of Fowls)를 비롯한 『가웨인과 래그넬 부인의 결혼』(The Wedding of Sir Gawain and Dame Ragnell)과 같은 중세 로맨스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다른 아닌 남녀의 사회적 신분이다. 안드레아스 역시 궁정의 성직자이며 결혼 성사를 관여할 사제로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아스가 활동하던 12세기 프랑스 남부지역에서는 물론 영국을 포함한 중세 여러 지역에서 역시 인품, 그리고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언어의 힘이 사회적 신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실제 예를 중세 결혼의 기록에서 찾는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다.⁶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했다시피, 안드레아스의 『궁정풍 사랑』은 당시 특별한 계층인 귀족 독자들에게 언어적 유희내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픽션 혹은 게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초서가 『캐터베리 이야기』 속 다양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픽션을 통한 유희를 제공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것을 철회(撤回)하듯이, 안드레아스 역시 제 1, 2권에서의 언어 게임과 유희에 대하여 제 3권에서 철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초서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픽션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교훈)를 찾는 것은 당시 귀족 계층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안드레아스의 『궁정풍 사랑』에는 흥미를 제공하는 코믹한 설정이나 장난스러운 내용이 있

⁶ 안드레아스가 활동하던 시기와 차이는 있으나, 중세 시대 결혼관을 가장 사실적이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으로 *Paston Letters*를 참조.

는가 하면 그 속에 또한 독자에게 부여하는 교훈적 내용이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화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안드레아스는 귀족들에게 필요한 예의나 품위, 그리고 형식, 과정 등의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대화 형식들을 통하여 안드레아스는 귀족 계층에게 문법과 논리와 관련한 수사학적 모델들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드레아스의 『공정풍 사랑』은 당시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귀족의 훈육에 필요한 덕목들을 제공하는 양면적 기능을 보여준다(Monson, "Andreas Capellanus and Reception Theory" 8). 안드레아스의 『공정풍의 사랑』이 중세 그리스도교 정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것과 합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와 공정풍 사랑의 내용과는 합치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데, 안드레아스의 작품을 살펴보면 루이스의 주장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1-43). 제 1권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의 대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코믹한 분위기 속에서 안드레아스는 성직자의 본분에 맞게 사랑에서 비롯되는 덕목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 4장에서 안드레아스는 사랑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은 수많은 덕목으로 인간을 빛나게 해주며, 상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좋은 성품을 가르쳐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O what a wonderful thing is love, which makes a man shine with so many virtues and teaches everyone, no matter who he is, so many good traits of character!; 42; 31). 안드레아스의 작품에 아이러니와 풍자 그리고 패러디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랑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덕목들로 안드레아스는 또한 '남에게 기꺼이 베푸는 마음'(generosity), '용기'(courage), '친절'(gentleness), '신뢰'(truthfulness), '예의'(courtesy), 그리고 '겸양'(humility)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세시대 귀족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기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남녀의 대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 같은 덕목들에 의하여 젊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 순치(順治) 혹은 완화시킬 수 있기를 안드레아스는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세 번째 대화에서 신분이 높은 여성은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사랑

의 신의 근대에 복무할 자격들에 대하여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젊은 귀족에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대화에서 젊은 남성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한 여성의 가르침은 남성에게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남성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만을 간직한 채 처음 시작의 단계로 남성은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육체적 결합이나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처음 단계로 남성의 마음 상태가 회귀하는 모습은 비단 세 번째 대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나머지 일곱 개의 대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몬손(Don Monson)의 지적처럼 이러한 현상은 당시 궁정풍 사랑을 모티브를 삼고 있는 연애 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궁정풍 사랑의 보편적인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Third Dialogue* 8). 안드레아스의 궁정풍 사랑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형식에 초점이 놓여 있으며, 과정 속에서 상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한 욕망이나 욕구가 서서히 제어 내지 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음유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안드레아스 역시 궁정풍 사랑을 귀족 계층의 비도덕적이며 타락하고 왜곡된 성(性) 문화의 일부로 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기사’들의 고삐 풀린 성 본능을 순치, 통제, 그리고 절제하기 위한 훈육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안드레아스가 말하는 사랑에는 육체적 결합은 물론 육체적 즐거움 그 자체가 없음을 뿐만 아니라 사랑(amor)과 욕정(libido) 사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남녀 사이의 이어지는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말장난속에서조차도 안드레아스는 궁정풍의 사랑이 그리스도교에서 지향하는 사랑의 개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oster 15-36).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 번째 대화에서 남성의 바람에 부응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조건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은 탐욕을 버리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마음’(generosity)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물론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은 궁정풍 사랑을 다룬 많은 작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덕목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자비’(Christian charity)와도 일맥상통한다. 여성은 또한 “중상모략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겸손함과 봉사할 준비”를 갖추어야한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궁정풍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들 모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이밖에도 여성의 입에

서 나오는 가르침들은 세속적 사랑을 하기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교에서 지향하는 덕목들에 더욱 더 가깝다. 심지어 여성의 다양한 가르침들 가운데 성직자에 대한 존경과 규칙적인 교회의 출석 등은 세속적 사랑을 위한 자격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르침에 해당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세 번째 대화에서 여성이 젊은 남성에게 전달하는 교육 내용은 세속적 사랑(*amor*)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까리타스(*caritas*)의 개념이나 가치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디노미 신부(Fr. A. J. Denomy)는 안드레아스가 보여주는 궁정풍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까리타스나 플라톤적 사랑이 아닐뿐더러 신비스러운 사랑이나 정욕도 아니며 일종의 특수한 종류의 사랑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궁정풍의 사랑은 육체적 욕망을 기저로 삼고 있으나 육체적 소유 내지 결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일부 엘리트 계층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덕과 선을 창출해내는 원천으로 궁정풍의 사랑을 이들 계층은 여겼다고 그는 주장한다(208-28). 실제 ‘성’과 ‘결혼’ 그리고 ‘젊은 기사들’과 관련한 12세기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감안할 때, 안드레아스가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궁정풍 사랑이란 독자들에게 단순히 흥미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봉건 사회의 이념내지 그리스도교의 가치관과 양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화처럼 귀족 계층 사이에 유행했던 궁정풍 사랑이 당시 귀족 계층에서 유흥했던 비윤리적이며 타락한 관계를 미화하고 있다기보다는 젊은 귀족들을 위한 이른바 순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인다. 궁정풍 사랑을 통하여 안드레아스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들만의 배타적인 정서 내지 문화,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들만의 대화 스타일과 품위, 그리고 예의 등을 당시 귀족들은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종의 훈육의 기능, 즉 젊은 기사의 성급한 욕망(*libido*)이나 조야하고 거친 성품을 보다 세련되고 우아하게 만들 목적으로 궁정풍의 사랑의 전통이 당시 귀족 계층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벤튼의 주장대로 안드레아스가 궁정풍 사랑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샴페인의 백작부인인 마리를 위해 안드레아스가 이 책을 기술한 것도 아니었다고 벤튼은 주장한다. 설령 그랬다 손치더라도 안드레아스의 『궁정풍 사랑』이 당시 귀족을 위한 여흥이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 귀족들의 타락한 성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었다면 백작부인으로서 마리가 이것을 용납했을지도 의문이 든다. 그녀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당시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마리의 독려(督勵)와 금전적 도움 아래 안드레아스가 당시 귀족 계층의 성문화의 단면을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분위기 속에서 풍자 내지 고발하고 있다는 가정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⁷ 오히려 12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의 결혼과 성에 대한 기록들을 감안해볼 때, 궁정풍 사랑에서 언급되는 있는 결혼한 귀부인과 젊은 기사 사이의 불륜, 그리고 귀부인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기사의 복종 등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며 일종의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당시 장자상속제(*primogeniture*)가 보편화되면서 장자 외에 젊은 총각 기사들은 나름의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방랑과 모험을 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기사는 능력 있는 주군을 만나게 된다. 이들 젊은 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상류층의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게 되는 것인데,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주군의 부인과의 결합을 젊은 기사가 꿈을 꾸게 된다. 귀부인을 향한 젊은 기사의 동경과 희망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나 기사로 하여금 기사에 걸 맞는 덕목을 갖추고 이들 덕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안드레아스의 작품에서는 물론 당시 궁정풍 사랑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문학작품들에서 젊은 기사가 얻으려는 귀부인은 상위 신분의 여성과 결합하여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젊은 기사의 마음속 소망내지 판타지에 불과하다. 카르디니(F. Cardini)는 궁정풍의 사랑에서 귀부인에 대한 젊은 총각 기사의 사랑은 기사가 용기와 무용으로 언젠가는 거머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우면서도 돈이 많은 상속녀에 대한 은유라고 말한다(92).

결국 젊은 기사의 마음속 사랑의 정도와 시련이 크면 클수록 교육적 가치는 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놀이적 수련을 통하여 기사는 덕목을 수양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함양함과 동시에 뒤비의 말처럼 자신의 성적인 욕구 또한 순화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상의 문학적 공간에서와는 달리 실제 궁정풍 사랑이 젊은 기사의 육체적 욕망을 부추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안드레아스의 세 번째 대화에 등장하는 귀부인처럼 궁정풍 사랑에서 귀부인은 젊은 기사의 욕구를 순치시키고 기사로서 덕목을 수양하게 만드는 교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드레아스가 비록 코믹한 설정과

⁷ 유희수; 조르주 뒤비; *Duby, Medieval Marriage* 참조.

내용을 통하여 당시 귀족 계층 사이에 유행했던 궁정풍 사랑을 언급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다양한 대화에서 안드레아스는 궁정풍 사랑이 당시 귀족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언어 사용, 품위와 세련된 예절 등을 가르치는 훈육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 번째 대화를 통하여 안드레아스는 뒤비의 주장처럼 궁정풍의 사랑이 총각기사의 욕망을 길들이는 이른바 ‘절제 교육’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젊은 기사가 덕망 있고 훌륭한 기사도 성장하여 사회에 흡수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순기능적 역할을 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궁정풍의 사랑이 당시 봉건주의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직자인 안드레아스가 귀족 계층의 독자들을 위해 『궁정풍의 사랑』이 집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주제어 | 궁정풍의 사랑, 안드레아스 카펠레너스, 언어유희 및 게임, 훈육, 젊은 기사

인용문헌

-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illard R. Trask. Princeton, NJ: Princeton UP, 1953.
- Benton, John F. "The Court of Champagne as a Literary Center." *Speculum* 36 (1961): 551-91.
- _____. "The Evidence for Andreas Capellanus Re-examined Again." *Studies in Philology* 59 (1962): 471-78.
- Boase, Roger. *The Origin and Meaning of Courtly Love*. Manchester: Manchester UP, 1977.
- Bowden, Betsy. "The Art of Courtly Copulation." *Medievalia et Humanistica* 9 (1979): 67-85.
- Burke, Kenneth.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and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69.
- Butturff, Douglas R. "The Comedy of Coquetry in Andreas De Amore." *Classical*

- Folia* 28 (1974): 181-90.
- Cardini, Franco. "The Warrior and the Knight." *The Medieval World*. Ed. J. Le Goff. London: Collins, 1990, 74-111.
- Cherniss, Michael D. "The Literary Comedy of Andreas Capellanus." *Modern Philology* 72 (1975): 223-37.
- Coghill, Nevill. "Love and 'Foul Delight': Some Contrasted Attitudes." *Patterns of Love and Courtesy*. Ed. John Lawler. London: Edward Arnold, 1966, 141-56.
- Davis, Norman, ed. *Paston Letters and Papers of the Fifteenth Century*, Part 1. Oxford: Clarendon, 1971.
- Denomy, Alexander. "The *De amore* of Andreas Capellanus and the Condemnation of 1277." *Medieval Studies* 8 (1946): 107-49.
- Donaldson, Talbot. *Speaking of Chaucer*. New Haven: Yale UP, 1970.
- Duby, G. *Medieval Marriage: Two Models from the Twelfth-Century France*. Trans. Elborg Forster.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8.
- _____. "À propos de l'amour que l'on dire courtois." *Mâle Moyen Âge, De l'amour et autre essai*. Paris: Flammarion, 1988.
- Foster, Kenelm. "Courtly Love and Christianity." *The Two Dantes and Other Studies*. London: Darton, 1977, 15-36.
- Jackson, W. T. H. "The *De amore* of Andreas Capellanus and the Practice of Love at Court." *Romantic Review* 49 (1958): 243-51.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New York: Oxford UP, 1958.
- Monson, Don A. "Andreas Capellanus and the Problem of Irony." *Speculum* 63 (1988): 539-72.
- _____. "Andreas Capellanus and Reception Theory: The Third Dialogue." *Medievalia et Humanistica* 31 (2005): 1-13.
- Parry, John Jay, trans. *The Art of Courtly Love*. New York: Columbia UP, 1990.
- Robertson, D. W., Jr. *A Preface to Chaucer*. Princeton, NJ: Princeton UP, 1962, 391-448.
- _____. "The Subject of the *De amore* of Andreas Capellanus." *Modern Philology* 50 (1953): 145-61.
- 유희수. "11~12세기 프랑스 귀족사회에서의 결혼과 성: 교회 이데올로기와 세속현실의 충돌과 타협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65 (2000): 35-56.
- 이동춘. 『궁정풍 사랑의 기법』. 논형, 2009.
- 조르주 뒤비, 『중세의 결혼: 기사, 여성, 성직자』. 최애리 옮김. 새물결, 1999.

ABSTRACT**Andreas's *De amore* in Terms of Game and Education****Dongchoon Lee**

In approaching Andreas's *De amore* objectively, one must confront the twofold problem of its subject and its ideological consistency. Its ostensible subject is *amor*, but it is not entirely clear what sort of *amor* Andreas has in mind, or whether his views are internally consistent. Despite the difficulty in searching for the systematic unity which runs all the way through the treatise, it is revealed that the love in which Andreas is interested is most appropriately to be found among the young, rich, and handsome, particularly among the noble class. Moreover, they are refined in behavior and sentiment, especially excellent in their verbal and logical skill, and they can devote themselves utterly to the pursuit of love without the distractions of having to make a living.

Another certain thing that can be found in Andreas's treatise is that it is devoted not to strategies of seduction, but to playful dialogues between the lovers and their ladies. The playfulness involved in the artificial nature of their dialogues allows Andreas's noble audience to enjoy the comic tension inherent in whether or not the sought after ladies would say "yes" or "no" and the ladies' clever retorts against the lovers' seductive arguments. Both parties can exchange their skillful and humorous badinage within a certain boundary of social manners and etiquettes. In a word, both parties seem to be enjoying the conversation in its own right, as in an amusing game of flirtation. In addition to the *ludic* effect of some sort of verbal game, Andreas's treatise aims not so much at encouraging the adulterous affair with the ladies as at chastening and bridling the wild desire of the noble audience, especially the unmarried young knights, and at breeding them as the noble and virtuous knights for the society they belong to.

Key Words | courtly love, Andreas Capellanus, verbal game, education, young knight